

민병욱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 독서진흥 위한 10억 원 예산 확보, 조직 정비

“전 국민이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들어 국민들의 독서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위) 민병욱(57) 위원장이 범국민 독서운동에 앞장섰다. 간윤위는 독서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정해진 예산안보다 10억원을 더 확보했다. 이는 이례적인 일로 민 위원장이 국회에 가서 독서진흥의 중요성을 피력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 실천을 위해 조직을 정비했다. 지난 3월 2일 간윤위가 발표한 조직개편 자료에 따르면, 2개 부의 심의기능을 1개 부로 집약하고, 독서아카데미 운영반과 독서진흥팀을 만들었다. 즉 중첩돼 있는 심의 인력을 독서진흥사업 추진 조직에 재배치했다. 지난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12월 28일 공포된 <독서문화진흥법>이 <도서관법>과 더불어 올해 4월 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간윤위의 새로운 역할 모델이 주목된다.

민 위원장은 2006년 7월, 간윤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좋은 책 좋은 글이 좋은 생각을 낳는다’는 슬로건을 정하고 책 읽는 아이 캐릭터인 ‘책뽀’ 선정, 동시가 흐르는 기차여행, 어머니독서학교 등 독서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올해는 ‘전 국민이 책 읽는 해’로 설정한 만큼 민 위원장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듯 하다.

간윤위가 올해 추진할 독서진흥사업의 줄기는 크게 네 가지다. 문화소외계층의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서아카데미 신설 및 독서교육 데이터베이스 기반 구축,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 규모의 독서 캠페인, 향후 독서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책을 사랑하게 만드는 BK(Book Kids) 07 프로그램, 이동 북페어,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책 미술대회 및 명사들의 책 읽는 모습 전시회 개최 등 독서진흥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기대된다.

민 위원장은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간윤위가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독서아카데미는 특성화된 독서지도 프로그램으로 상업적 교육기관과 차별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독서, 토론, 글쓰기 등 올바른 독서지도 방법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 기관과 조율 중이다. 민 위원장은 “독서진흥과 출판진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면서, “출판계뿐만 아니라 독서기관, 언론과의 제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람은 그 자신이 읽은 것들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읽지 않으면 안됩니다. 간윤위에서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호수에 떨어지는 작은 빗방울’에 불과하지만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

취재 정윤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